

# 광주시 위원회만 205개... '낮잠 자는 곳' 손본다

### 운영 실적 없는 위원회 통폐합·폐지, 총량제 도입 위원회 4개 중 1개꼴 연간 한 차례도 회의 안 열어

광주시가 20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시는 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총량제도 도입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205개다. 법령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110개, 조례 99개, 규칙·훈령 7개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강행 위원회'는 법령 92개·조례 76개, 임의로 설치한 위원회는 법령 18개·조례 12개다. 지난해 말 진행된 위원회 활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위원회 4개 중 1개꼴로 연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광주시는 우선 총량제를 적용해 법령이

나 조례에 설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를 신설하려면 기존 위원회를 없애기로 했다. 3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한다. 장기간 활동이 없는 강행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비하고,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 중 전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는 통폐합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 가운데 주민감사 청구 심의, 민원조

정, 저수지 댐 안전관리, 도로명 주소 등 3년 이상 회의를 없었던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1년간 활동이 없는 안전관리, 환경정책, 교통 등 19개 위원회에는 운영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조례를 만들면 깊은 생각 없이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의무 위원회 중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정리하고, 임의 위원회도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회의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맨 오른쪽)이 2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실무추진단 4-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실무추진단' 출범

### 광주시, 일자리 창출 등 주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될 광주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실무추진단'이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시청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대책위원회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두 부시장을 공동 단장으로 광주시·광주전남연구원·전문가들이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을 찾는다. 실·국에 꾸려진 대응반은 경제, 산업, 안전·복지, 환경생태, 문화·관광, 공간 인프라, 사회·행정 등 7개 분야별 사업을 발굴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날 회의는 단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시 정책기획관의 대책위 운영 방향 보고, 광주과학기술원 문승현 교수의 기초 발제, 광주전남연구원의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문승현 교수는 "코로나 이후 디지털 사회로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일 형태 발생, 의료 헬스산업의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대유행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단장인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수도권에 집중·과밀 된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의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 모집

전남도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 전남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 추세에 맞춰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된 12억원을 투입하고, 대상을 자활기업까지 확대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 후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실사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생산·판매·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사용이 지속 가능한 시설·장비에 한해 지원된다. 재료비와 누리집 구축, 사무용품 등 소모성 경비는 제외된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기업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까지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99개 기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모든 시내버스 CCTV 설치 광주시, 올 691대 추가

광주시는 "시내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영상기록 장치(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353대에 이어 올해 691대를 추가한다. 설치가 마무리되면 광주 1044대 모든 시내버스에 CCTV가 가동된다. 그동안 운영된 영상기록장치는 노후화 및 고장으로 물체의 식별이 어려웠으나, 새로 설치한 영상기록장치(CCTV)는 기존 4채널에서 7채널로 카메라 감시기능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차량내부 승객 안전, 운전원 안전보호, 차량외부의 사고위험 방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승객과 운전원의 안전 도모, 차량 외부 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의 버스 이용 시 동선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에 'AI 데이터 운용성센터' 설립

### 시·한국표준협회 업무 협약 체결 광주형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기여

광주시가 국가 표준·품질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와 손잡고 데이터 운용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표준협회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AI 데이터 표준화 기반 조성, 상호 운용성 센터 광주 설립, 평가인증 기준 개발, 인증 기업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AI데이터의 표준연구 및 국내·국제 표준활동 전개 등 AI데이터 표준화 기반조성 ▲국내외의 표준활동 추진을 위한 'AI데이터 상호운용성센터'의 광주 설립 ▲AI데이터 상호운용성 평가·인증기준 개발 ▲AI데이터 인증 기업 컨설팅 및 표준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 AI집적단지

내에 'AI데이터 상호운용성평가센터'가 들어서면, 지역 AI전문기업이 개발한 AI알고리즘과 서비스·제품의 표준화가 체계적으로 지원돼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광주형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은 "체계적인 AI 데이터 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광주시의 AI 비즈니스 기반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가 크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설립돼 산업 표준화와 품질경영 교육, KS-ISO 인증 등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데이터·알고리즘 등 표준 개발을 통해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개발한 AI 서비스와 제품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해외 농수산물 상설판매장' 10호점 개설

전남도는 최근 미국 LA에 소재한 대형 마트인 한남체인 토렌스점에 농수산물 상설판매장 10호점을 개설하며 안정적인 미국 수출 판로를 확보했다. 전남도 상설판매장은 해외 현지에서 운영 중인 상설판매장으로, 지난 2017년 미국 LA에 풀러턴점이 첫 개점한 바 있다. 지난해 연중 운영된 3개소에서만 연매출 26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번 토렌스점은 미국에서 6번째, 해외 통틀어 10번째로 개설된 전남 상설판매장으로, 롱비치 항구와 인접한 부유층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복가공품을 비롯 환과, 유기농 음료, 굴비, 장흥 표고, 젓갈류 등 60여개 기업의 400여 가지 전남 우수 농수산물품이 입점해 뛰어난 판매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남 농수산물

품 수출액은 지난 5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2% 정도 감소했으나, 미국 수출액은 3400만 달러로 26.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전남 농수산물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설판매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2024년까지 상설판매장을 전 세계에 30개소까지 확대해 적극적인 수출선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해 임시 운영 중인 K마트 리베라파크점도 다음달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앞으로 미국(6개소), 중국(2개소), 대만(1개소), 말레이시아(1개소), 베트남(1개소) 등 5개국 11개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올 10월 호주, 태국 등에도 추가 개설해 14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 신림선 경전철 운영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서울 신림선 경전철 운영·유지보수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는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사행하는 이번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신림선 경전철은 여의도 셋방 역부터 서울대역까지 7.76km, 정거장 11개, 차량기지 1개, 종합관제동 1개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는 3700억원으로 2022년 6월 개통 예정이다. 도시철도공사는 4년 1개월간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특히 신림선 경전철은 건설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고부 차륜 방식이어서 2호선 운영 기술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시철도공사는 기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 수목장 투자

## 신규 수목장 투자

###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